

2011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월 CBSI 전월비 4.5p 상승한 72.4 기록

- 8월 이후 회복세 보인 CBSI, 최근 3개월 동안 70선 주위 횡보세 -

- 2011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5p 상승한 72.4를 기록함.
- 통상 1월에는 직전 년도 연말대비 연초 공사발주 물량 감소, 혹은 건설공사진행 어려움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작년 12월에 비해 지수가 소폭 상승함.
- 이는 예년과 달리 작년 12월에 공공공사 발주 집중현상이 없었고,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주택경기 회복세도 분양 비수기에 접어들어 따라 12월 CBSI가 예년과는 달리 급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월비 5.8p 하락하여 이미 매우 부진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CBSI는 작년 8월 저점(50.1)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해 11월 73.7을 기록한 이후 12월에 67.9로 하락했는데, 올 1월에는 다시 72.4로 상승해 3개월 동안 7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보임.
- 이는 공공공사 발주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CBSI 회복세를 주도했던 주택경기의 향후 회복세 지속 여부가 다소 불확실한 가운데, 분양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주택경기가 CBSI 상승을 계속해 견인하기는 어려웠다는 결과로 해석됨.
- 한편,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14.6p상승한 87.0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5p 가까이 상승한 것은 그만큼 건설업체들이 향후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CBSI 전 저점이었던 작년 8월에 8월 실적치(50.1) 대비 9월 전망치(71.5)가 21.4p 상승했는데, 실제로 9월 지수가 전월비 12.5p 상승했고, 이후에도 지수 회복세가 이어졌음.
- 이를 감안할 때 현재 70선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CBSI는 향후 회복세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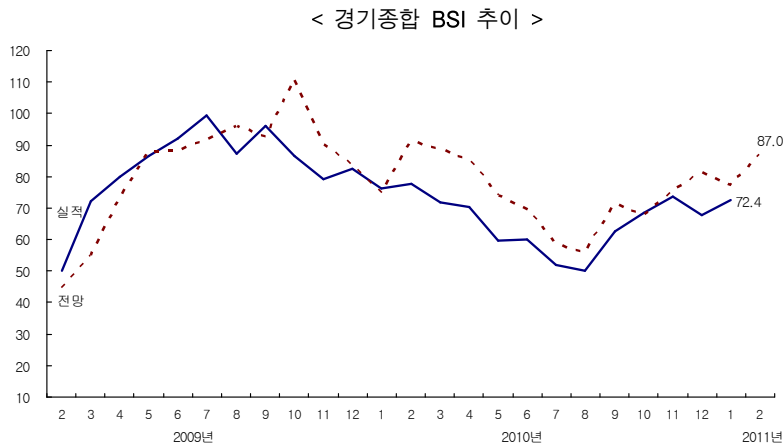
- 다만, 2월은 통상 계절적 요인에 의해 여전히 지수가 부진한 경우가 많고, CBSI회복세를 주도한 주택경기도 3월부터 분양시기가 본격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전망치처럼 2월부터 지수가 본격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8.29대책 연장 여부가 3월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CBSI 회복세의 장기 지속 여부는 3월 이후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지수가 하락했던 대형, 중견업체 지수는 작년 11월 수준으로 지수가 재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체 지수는 하락함.
- 작년 12월에 공공공사 발주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14.8p 하락(76.9 기록)하며 CBSI 하락을 주도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1월에는 전월 급락에 대한 통계적 반동(16.0p 상승)을 시현하며 92.9를 기록함. 12월을 제외하면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90선 초반에서 횡보세를 보임
- 중견업체 지수 역시 작년 12월에 전월비 10.4p 하락한 70.4를 기록했으나, 1월에는 전월비 8.8p 상승한 79.2를 기록했으며,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대략 70~80선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임.
- 한편, 중소기업체 지수는 작년 12월에 중대형 공사에 비해 소규모 공사 발주는 양호했던 영향으로 전월비 9.8p 상승했는데, 올 1월에는 연초 공공공사 발주 부진 영향으로 전월비 13.6p 하락한 40.7을 기록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와 자금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재비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7, 99.6를 기록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가 각각 88.1, 66.2를 기록하여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자재비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8.2, 86.8을 기록해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월 CBSI 전월비 4.5p 상승한 72.4 기록
작년 8월 이후 회복세 보인 CBSI, 최근 3개월 동안 70선 주위 횡보세

- 2011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5p 상승한 72.4를 기록함.
- － 통상 1월에는 직전 년도 연말대비 연초 공사발주 물량 감소, 혹한기 건설공사진행 어려움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작년 12월에 비해 지수가 소폭 상승함.
- － 이는 예년과 달리 작년 12월에 공공공사 발주 집중현상이 없었고,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주택경기 회복세도 분양 비수기에 접어들어 따라 12월 CBSI가 예년과는 달리 급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월비 5.8p 하락하여 이미 매우 부진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 CBSI는 작년 8월 저점(50.1)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해 11월 73.7을 기록한 이후 12월에 67.9로 하락했는데, 올 1월에는 다시 72.4로 상승해 3개월 동안 7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보임.



- － 이는 공공공사 발주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CBSI 회복세를 주도했던 주택경기의 향후 회복세 지속 여부가 다소 불확실한 가운데, 분양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주택경기가 CBSI 상승을 계속해 견인하기는 어려웠다는 결과로 해석됨.
- 한편,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14.6p상승한 87.0을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5p 가까이 상승한 것은 그만큼 건설업체들이 향후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 CBSI 전 저점이었던 작년 8월에 8월 실적치(50.1) 대비 9월 전망치(71.5)가 21.4p 상승했는데, 실제로 9월 지수가 전월비 12.5p 상승했고, 이후에도 지수 회복세가 이어졌음.
- － 이를 감안할 때 현재 70선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CBSI는 향후 회복세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다만, 2월은 통상 계절적 요인에 의해 여전히 지수가 부진한 경우가 많고, CBSI회복세를 주도한 주택경기도 3월부터 분양시기가 본격 시작된다는 점에서 전망치처럼 2월부터 지수가 본격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8.29대책 연장 여부가 3월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CBSI 회복세의 장기 지속 여부는 3월 이후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지수가 하락했던 대형, 중견업체 지수는 작년 11월 수준으로 지수가 재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체 지수는 하락함.
- － 작년 12월에 공공공사 발주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14.8p 하락(76.9 기록)하며 CBSI 하락을 주도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1월에는 전월 급락에 대한 통계적 반등(16.0p 상승)을 시현하며 92.9를 기록함. 12월을 제외하면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90선 초반에서 횡보세를 보임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년 1월		2월
											실적	전월 전망치	전망
총 합	71.7	70.5	59.5	60.1	51.9	50.1	62.6	68.5	73.7	67.9	72.4	77.5	87.0
구 분	대형	78.6	80.0	64.3	69.2	50.0	50.0	71.4	91.7	91.7	76.9	92.9	100.0
	중견	70.4	63.0	63.0	57.1	57.1	59.3	69.2	69.2	80.8	70.4	79.2	80.8
	중소	65.0	67.9	50.0	52.6	48.3	39.7	44.8	40.4	44.6	54.4	40.7	47.3
지 역	서울	73.8	74.6	63.5	63.5	54.0	55.0	69.6	84.4	91.2	75.3	90.5	88.3
	지방	68.4	64.4	53.9	56.9	48.8	42.2	51.7	45.1	46.6	56.7	46.2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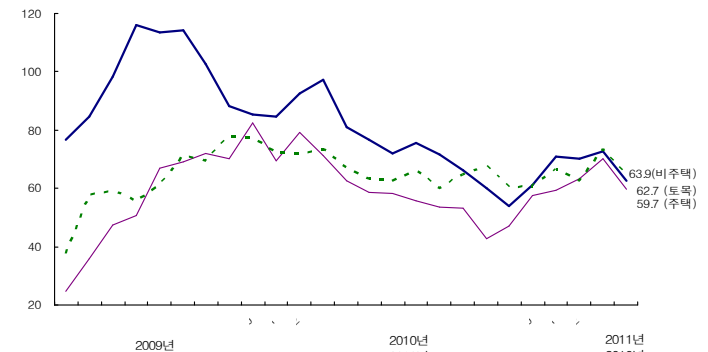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중견업체 지수 역시 작년 12월에 전월비 10.4p 하락한 70.4를 기록했으나, 1월에는 전월비 8.8p 상승한 79.2를 기록했으며,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대략 70~80선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임.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작년 12월에 중대형 공사에 비해 소규모 공사 발주는 양호했던 영향으로 전월비 9.8p 상승했는데, 올 1월에는 연초 공공공사 발주 부진 영향으로 전월비 13.6p 하락한 40.7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5.2p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10.5p 감소함. 서울업체 지수는 90.5를 기록한 반면, 지방업체의 지수는 46.2에 불과해 지방의 건설경기 상황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12월 75.3을 기록 부진하였음. 1월에 다시 15.2p 증가한 90.5를 기록 지난 11월 이후 한달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함.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10.5p 감소한 46.2를 기록함. 이로써 지수는 다시 40선으로 하락함.
- 서울업체와 지방업체 간의 지수가 상반되게 움직이는 것은 지역 간 양극화 상황이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공사 물량지수 연초 비수기 영향으로 64.6 기록

- 1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1.1p 감소한 64.6을 기록함. 통상 1월에 50~70선에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해온 것을 감안, 연초 비수기의 영향으로 물량 상황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매년 1월 공사물량 지수는 2010년 1월 80.5를 제외하고 50.7~76.4 수준을 기록해왔음, 2003~2011년까지 1월 물량지수 평균이 63.4이며,
- 12월부터 1월 사이 하락폭의 평균이 18.1p인 것을 감안, 올해 1월 물량지수 하락폭은 다소 완만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공사물량 부진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올해 1월에도 물량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공종별로 모든 지수들이 전월보다 9~10p 하락, 60선 초반에서 50선 후반대를 기록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0.2p 하락한 62.7을 기록함.
- 주택 물량지수도 전월 대비 10.3p 감소한 59.7을 기록, 3개월 만에 다시 60선 아래로 떨어짐.
- 건설사들이 작년 연말 계획된 분양을 연기해 연말 분양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올해 연초에도 분양을 미뤄 주택 공사물량이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9.6p 하락한 63.9를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이 85.7, 중건이 68.0, 중소가 35.8로 중소기업체의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4.3 감소한 85.7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물량지수가 71.4를 기록하였으며, 주택물량과 비주택물량 지수는 78.6을 기록함.
 - 중견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6.1p 감소한 68.0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72.0)과 비주택(76.9)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 보다 1.2p, 4.9p 상승함. 반면, 주택물량은 전월보다 5.3p 감소한 66.7을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3.3p 감소한 35.8을 기록함. 모든 공종이 전월보다 10p 이상 감소,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41.8과 32.0을 기록함. 주택물량도 29.8에 불과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4.6	85.7	68.0	35.8	84.3	35.2
	전망	81.1	107.1	79.2	52.8	97.3	57.2
토목	실적	62.7	71.4	72.0	41.8	76.6	42.2
	전망	75.1	92.9	77.3	51.9	84.2	61.9
주택	실적	59.7	78.6	66.7	29.8	77.6	32.9
	전망	71.1	92.9	73.9	42.6	88.0	46.5
비주택	실적	63.9	78.6	76.9	32.0	82.7	36.5
	전망	79.2	92.9	96.0	44.0	100.0	48.8

주 : 실적은 2011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2.8p 감소하였고 지방 업체의 물량 지수도 23.4p 감소함. 지방업체의 지수는 35.2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수가 크게 위축 되었던 2008년 10월(33.3) 수준으로 지수가 위축, 지방업체의 물량상황이 매우 침체된 상황임.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8p 감소한 84.3을 기록, 감소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23.4p 급감한 35.2를 기록함.

- 2011년 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월 보다 16.5p 증가한 81.1로 1월보다는 물량상황이 개선 것으로 전망함. 공종별로는 비주택물량의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토목 물량지수는 1월 실적치보다 12.4p 증가한 75.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주택 물량지수는 1월보다 11.4p 증가한 71.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비주택 물량지수는 1월보다 15.3p 증가한 79.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자금조달 관련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와 자금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재비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7, 99.6를 기록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가 각각 88.1, 66.2를 기록하여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자재비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8.2, 86.8을 기록해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88.2	100.0	96.2	65.5	98.1	73.7
		전망	81.5	92.9	80.0	69.8	89.0	70.7
	자금조달	실적	86.8	100.0	84.0	74.5	92.2	79.1
		전망	87.4	100.0	83.3	77.4	91.8	81.1
인력	수급	실적	94.7	100.0	103.8	78.2	100.0	87.4
		전망	96.3	107.1	100.0	79.2	102.0	88.1
	인건비	실적	88.1	92.9	100.0	69.1	92.6	82.0
		전망	89.4	92.9	96.0	77.8	89.3	89.8
자재	수급	실적	99.6	114.3	100.0	81.8	106.4	90.1
		전망	99.9	114.3	100.0	83.0	106.3	90.9
	비용	실적	66.2	92.9	53.8	49.1	71.6	57.8
		전망	74.2	100.0	68.0	50.9	81.9	62.8

주 : 실적은 2011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월 예측지수임.